

인 체 해 부 도

김 사 연

인천 만수당약국, 한국문인협회 회원

성 행위를 할 때 남자는 좌측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우측으로 돌아가라는 비법이 있다. 남자는 여자의 음기(좌측)를 빼앗아 보충시키고, 여자는 남자의 양기(우측)를 빼앗아 보충시키기 때문이다.

정력이 넘치면서도 자신과 상대방을 다스리지 못해 고민하는 젊은 남성들이 있다. 슷 총각이 포르노 비디옷를 본 후 자신도 모르게 사정을 하거나, 꿈 속에서 성교를 하며 실제로 팬티를 적시는 경우는 경험 부족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고개 숙인 젊은 유부남들의 경우는 테크닉 부족으로 봐야 한다.

허풍쟁이 사내가, 자기는 두 시간 동안이나 그 일(?)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 말을 들은 동네 부인들은 허풍쟁이 사내의 부인을 찾아가 “얼마나 좋겠냐” 며 부러워했다.

그러자 허풍쟁이 사내의 부인은 “흥! 두 시간? 세우는데 한 시간, 일보는데 1분, 나머지 59분 동안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두 시간은 맞네!”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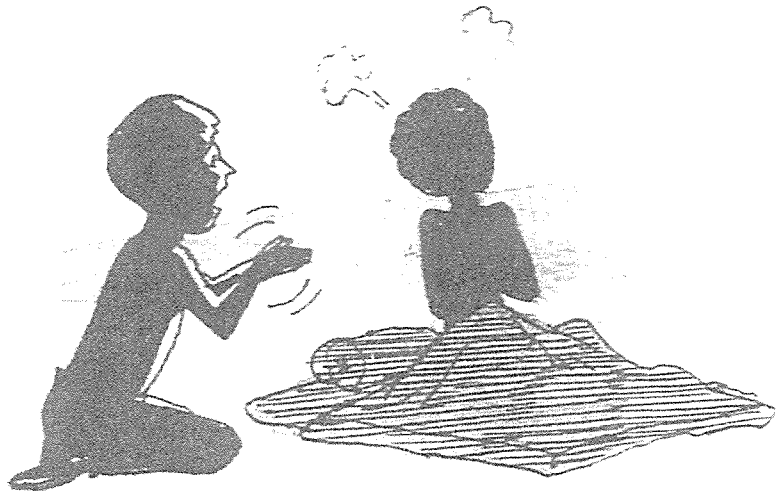
조루증을 해결하기 위해 ‘칙칙이’ 라고 부르는 국소마취제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남자의 성기에 완전히 흡수된 후에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하게 서둘러 약물이 질 안에 흡수되면 여자의 성기도 마취가 되어 성적

인 쾌감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섹스란 서로를 즐기는데 목적이 있음을 망각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봉사하기 위한 주종관계를 스스로 백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아니 여성의 신비에 대해 무지함을 자인하는 격이기도 하다. 이들은 오랫동안 펄펄 질 해주는 것이 섹스의 최고 율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다섯 살박이 어린 아들이



난생 처음 아빠와 목욕을 갔다. 아들은 자기 것과 아빠 것이 크기와 모양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응! 아빠 건 그랜저고 네 건 티코이기 때문이야!”

아들에게서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엄마는 코방귀를 끼며 말을 받아넘겼다.

“겉모양만 그랜저면 뭐하냐? 터널에 들어가기만 하면 엔진이 꺼지는 고물인데...”

더러는 성기가 커야 여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줄 알고 바셀린을 투입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여자는 고통만 느낄 뿐이고 상처에 염증이 생겨 성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다.

여자의 성감대를 몰라서이다. 국부에 베개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입술, 혀, 유방, 엉덩이, 허벅지와 손끝 발끝까지도 성감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여자이다.

여자의 성감대는 질 입구에서 안쪽으로 1/3깊이의 부분과 질 바깥 부분에 발달되어 있다. 특 불거져 나온 치골 접합부 아래쪽에 위치한 음핵은 최고의 극치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음핵은 피부 주름인 음핵 표피로 둘러싸여 있고 지각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손가락과 혀끝 등 인체를 이용한 직접적인 접

촉, 베개 등에 의한 압박성 자극, 또는 성교시 소음순이 당겨질 때 간접적으로 음핵에 예민한 자극이 전달된다.

즉, 남자의 성기가 질 입구로 들어가면 소음순을 끌어당기고 소음순 속에 연결된 음핵 표피도 당겨지며 음핵에 간접적인 자극을 준다.

남자가 몸을 밀착시켜 오면 치골과 치골 사이가 압박을 받아 음핵이 자극을 받게 된다. 성기를 뒤로 빼는 순간엔 소음순에 연결된 음핵 표피가 원래 위치로 당겨지면서 음핵을 간접적으로 자극시킨다.

이처럼 음핵에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이 반복되고 황홀한 상상력이 첨가되면 구름 위를 나는 듯한 짜릿한 극치감을 맛보게 되는 것

이다.

질 내부는 섹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성을 흥분시키는 촉매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예민한 성감대일 수는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여자의 성감대를 요리할 수만 있다면 정력제나 칙칙이가 필요할 리 없고 성기의 작음이 장애가 될 수 없다. ‘작은 차, 큰 기쁨’이란 선전문구처럼 황홀한 드라이브엔 그랜저든 티코든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핸들을 잡고 여유있게 창밖을 주시하듯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내려보거나 올려보는 쾌감이야말로 정력가만의 특권인 것이다. ㉞

생활상식

냉장고 알뜰 사용법

냉장고는 음식을 너무 빼곡이 넣으면 냉기순환이 안되어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 통상 공간의 60%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야채는 사온 즉시 닦고 손질해 보관해야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나중에 시들어서 버리는 부분이 적다. 특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 낸 보관통을 만들어 대파·오이·당근 등 긴 야채를 넣어두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잘 물러지지도 않는다.

냉장보관 기간은 두 부·조개류의 경우 1일, 돼지고기는 2일, 쇠고기는 5일, 달걀은 7일 정도다. 배추·시금치·콩나물은 3일까지가 적당하다. 냉장고 문에 식품을 넣은 날짜를 적어두면 식품을 오래 방치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음식물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 냉동시키려면 한번에 쓸만한 분량씩 조리 직전의 형태로 보관한다. 매번 다듬기 귀찮은 마늘이나 파도 다져서 비닐에 얇게 싸 냉

동시켰다가 나중에 녹여 먹어도 편리하다. 벽면에 붙여 사용하면 냉장고도 뒷면은 10cm, 옆면은 30cm를 때면 전기를 2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지혜다. 냉장고 내 곰팡이나 세균의 번식을 막으려면 식초를 탄 더운물을 행주에 묻혀 내부를 청소한다.

(자료 : 7월 9일자 한국일보)